

해외제약사, 코로나 90% 예방 성과

국내선 백신임상 초기... “개발 가속 위해 정부지원 절실”

화이자 3상 임상시험 결과 발표
11월 중 FDA에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업계 “장기적으로 국산 백신 필요”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가 발표되면서 국내 개발 현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화이자는 현지시간 9일, 3상 임상시험 참가자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94명을 분석한 결과 자사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90% 이상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간 결과이기는 하지만 90% 이상의 효과는 일반 독감 백신의 두 배에 가까운 것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의하면 독감 백신은 감염 위험을 40~60% 낮춰주는데,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홍역백신(93% 효과) 정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에서 90% 효과를 확인했다고 알려진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화이자제약 모습. /연합뉴스

도로 예방 효과가 강력하다는 뜻이다.

이날 발표는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패널인 ‘데이터 감시위원회’가 미국과 해외 5개국에서 총 4만3538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3상 시험에서 초기에 발생한 94명의 확진자를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앨버트 블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전세계에 이 글로벌 보건 위기를

끝내는 데 도움을 줄 돌파구를 제공하는 데 한 걸음 가까워졌다”며 몇 주 안에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에 관한 추가 데이터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화이자는 백신 안전에 관한 데이터를 점검한 뒤 11월 셋째주 미 식품의약국(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방침이다. 화이자 측은 올해 말까지 1500만~2000만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분량

(2회 투여 기준)의 백신을 제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년에는 13억회 투여분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와 과학계는 내년 상반기 중 화이자를 포함한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HO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기준 임상 단계에 있는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은 42개로, 11개였던 6월 중순과 비교해 많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10개 물질이 임상 3상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에서는 국내 개발사들이 아직 사람 대상의 임상을 시작하기 전이거나 초기 단계인 경우가 많아 속도 전에서는 뒤쳐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등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이다.

제넥신은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DNA 백신 후보물질 ‘GX-19’의 임상 1/2a상을 승인받고

현재 임상을 하고 있으며, SK바이오사이언스와 진원생명과학은 각각 식약처에 코로나19 백신 임상 1상 시험 계획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진원생명과학은 연내에는 임상 1상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LG화학 등도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미 3상을 진행 중인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다국적 제약사에 비해 아직 초기 개발 단계여서 이른 상용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사와 비교해 상용화는 늦어질 수 있겠지만 코로나19 재유행 등 장기적인 상황을 봤을 때 국산 코로나19 백신은 꼭 필요하다”며 “국내 임상에 속도를 붙이고 개발을 가속하기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은미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CJ CGV-왓차, ‘OTT·극장’ 공조시대 개막

양사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데이터·플랫폼 연계로 시너지
영화관련 온·오프라인 협력

국내 대표 멀티플렉스 CJ CGV가 국내 토종 OTT 왓차와 손잡았다. 양사의 데이터 및 플랫폼 연계를 통한 온·오프라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CJ CGV는 왓차와 9일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포괄적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영화 관련 온·오프라인 플랫폼이 함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CJ CGV 최병환 대표, 왓차 박태훈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데이터와 플랫폼 연계를 통해 상호 시너지를 높



업무 협약을 맺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는 (좌) CJ CGV 최병환 대표, (우) 왓차 박태훈 대표 /CJ CGV

이겠다는 방침이다. CJ CGV가 그동안 축적해온 극장 관람 데이터에 왓차의 온라인 미디어 소비 데이터를 더해 고객의 취향을 보다 세밀하게 분석할 예정이다.

실제로 CJ CGV는 1500만에 이르는 영화관 회원들의 빅데이터를 통해 영화 관람의 패턴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왓차 역시 콘텐츠 추천 및 평가 서비스 ‘왓차피디아’를 운영하며 취향 데이터와 개인화 추천 기술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뚜렷한 각자의 양사 데이터가 더해질 경우 고객들이 원하는 콘텐츠를 적시에 제공하고 흥행 여부의 예측 정확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또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플랫폼 영역에서 다양한 협업을 통해 고객 경험 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에는 글로벌 사업 연계를 통해 CJ CGV가 진출한 국가에서도 한국에서의 협력 모델을 소개하고, 서비스 추진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구조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도미노피자 “스타 셰프의 컬렉션 맛 보세요”

도미노피자가 10일 서울 중구 도미노피자 명동점에서 겨울 신제품 ‘스타 셰프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한국콜마, 코로나 진단키트 러시아 수출

이달부터 5년간 러시아 독점 유통

한국콜마가 러시아 유통업체와 손잡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를 러시아에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콜마는 진단키트 공급 사업을 시작으로 신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한국콜마는 최근 러시아 유전자 진단키트 및 의료기기 전문 유통업체인 EVA Medical사와 COVID-19 신속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러시아 현지 임상시험 및 등록을 완료했다. EVA Medical사는 한국콜마로부터 COVID-19 신속 진단키트를 공급받고 이 달부

터 5년 간 러시아에 독점적으로 유통할 예정이다.

이번에 러시아로 진출하는 COVID-19 신속 진단키트 ‘COVID-19 IgM/IgG Combo Test’는 항체진단키트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생긴 특정항체(IgM/IgG)를 채혈을 통해 10분에서 15분 안에 판별할 수 있는 제품이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러시아 내에서는 진단 정확성 등의 장점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COVID-19 진단키트 유통 사업을 시작으로 사업 다각화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은미 기자

BYC

4중 구조 방역마스크 출시

BYC가항사 방역마스크인 ‘BYCKF94 마스크(사진)’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BYCKF94 마스크’는 국내에서 제작된 황사방역 마스크로 와이어 프레임에 기능성 코지대도 안면 밀착이 가능해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다.

또한 4중 구조로 되어 있어 외부 오염물질에 대한 차단효과가 높고, 식약처로부터 의약품으로 KF94인증을 취득해 안전하다.

/원은미 기자



롯데GRS, 키오스크에 ‘에어택트’ 접목

4곳서 시범 운영, 공간 터치로 작동

롯데GRS가 무인 키오스크에 터치 없이 주문이 가능한 ‘에어택트’ 기술을 무인 키오스크에 접목한 비접촉식 터치스크린을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롯데GRS가 시범 운영하는 터치스크린은 모니터 화면 터치 없이 공간 터치(Air-Tact)만으로 동작하는 비접촉 터치스크린으로 세계 최초 Visual Haptic 기술을 접목한 제품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교차 감염 예방으로 고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범 운영한다.

에어택트 스크린은 현재 공항·역사·은행 등 이용객들이 많은 업종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롯데GRS의 롯데리아, 엔제리너스역시다중이용시설의 특성으로 인해 이용 고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범 운영을 결정했다.

이번 비접촉식 터치 스크린 ‘에어택트 스크린’은 롯데리아 강남우성사거리



롯데리아 매장에 설치된 비접촉식 ‘에어택트 스크린’

점, 노량진점과 엔제리너스 수유역점, 건대역점 등 총 4곳에서 약 4주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롯데GRS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매장 이용 고객 대상으로 QR코드 인증 및 방문 기록 작성 등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운영과 함께 무인 키오스크에 IT 기술을 접목한 스크린 운영 시범 운영으로 고객 안전 확보를 위해 시범 운영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